

VCR1-김용 총재 프로필

김준영 / 성균관대학교 총장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하신 분들과 전 세계 모두가 미래 번영을 위한 김용 총재의 훌륭한 리더십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김용 총재를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 / 세계은행 총재

감사합니다. 김용입니다. 여기 오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저는 한국의 교육 환경과 수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SKY대학에 입학시키기 위해 한국의 부모들이 온갖 노력을 기울인다는 이야기 또한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S, K, Y 성균관, 고려, 연세대' 맞죠?"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서울대에 있는 제 친구들한테 한 소리 좀 들겠네요.

세계의 모든 국가는 고등 교육 시스템과 중등 교육 시스템을 경제적 수요와 맞추려고 하지만 제가 말해두고 싶은 것은 그런 일은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를 제대로 갖춘 국가는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로 제가 여기 왔습니다. 저는 패널 분들의 의견도 물론 듣고 싶고 여러분의 의견 또한 들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어떤 부분이 잘 진행되고 있고 어떤 면은 잘 안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우리 시대에 있어 매우 중점적인 이슈이니깐요.

경제적인 관점에서 인적 자원에 대해 투자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투자의 질적 수준이 미래에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게 됩니다. 저는 더 많은 사람이 이를 이해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하기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는 특히 개도국에서 '보건'이나 '교육'을 돈을 쏟아 부어야 하는 부문이라 생각하고 이를 '비용'으로 인식했습니다. 우리 세계은행그룹은 '이는 비용이 아니다'라는 관점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교육에 투자할 여력이 없는데도 교육에 투자했던 국가들을 보면 예를 들어, 한국, 대만, 싱가포르와 같은 국가들을 그렇습니다. 노벨상 수상자이자 제 은사인 '아마르티아 센' 하버드대 교수는 "경제학자가 생각하기에 교육과 의료에 투자할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교육과 의료에 투자를 했던 국가들이 이제는 경쟁에서 앞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미래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경쟁력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투자는 어떤 성격을 띠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 한국과 매우 연관이 있는 질문은 “사당오락’과 같은 현상을 피하려면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가?”입니다. 제 교육자문팀이 여기 오기 전 사당오락이 무엇인지 제게 알려줬습니다. “하루에 4시간 자는 것이 좋다”는 생각은 의사인 제가 듣기에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면 학습 장애가 생긴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과학적 증거는 정말 많이 있습니다. 1990년대 후반에 이루어진 주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한 사람이 우울증을 경험할 확률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5배가 높습니다.

저는 한국의 청년 자살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성공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저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질문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런 주제에 관한 토론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초대를 받아 매우 기쁩니다. 오늘 여기 함께 하게 되어 매우 즐겁고요. 제 삼촌은 이 대학의 교직원인 전현 교수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로 퍼져나갈 수 있는 대화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세계은행 총재로서 여러분들로부터 배운 것을 가지고 돌아갈 테니까요. 감사합니다.

VCR2-세계 젊은이들이 당면한 문제

김용 / 세계은행 총재

총재직을 맡게 되었을 때 세계의 모든 문제가 제 자신의 문제가 된다는 사실은 저를 겸허하게 만들었습니다. 기아, 의료 서비스 부족, 에너지 부족과 같은 문제들이 세계은행에 주어진 과제입니다.

저는 여기 대한민국 서울에서 1959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보다 몇 년 전 한국의 1인당 GDP는 100달러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보다 낮았죠. 더욱 놀라운 사실은 1950년대에 대학 졸업생 수가 5%가 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말하자면 한국의 발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한국이 이룬 업적은 거의 불가능했던 사실이죠.

개발 경제학자들은 그 당시에 1950~60년.. 그리고 70년이 되어서조차도 한국이 발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한국은 여기 성공관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근본적인 유교 사상을 가지고 있고, 교육에 가치를 두는 문화가 없고, 농담 아니에요. 그리고 서구 사회의 영향을 충분히 받지 못한 국가였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 지역에서 발전할 수 있는 두 국가로 ‘필리핀’과 ‘파키스탄’을 꼽았었습니다. 그 이유로 그 두 국가가 서구 문화의 영향을 충분히 받았다는 점을 들었었습니다. 오늘날 모든 게 변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가장 걱정스러운 점은 한국의 발전에 관해 제기됐던 과거 주장들이 아프리카 국가에 거의 같은 형태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절대로 어떤 특정 국가를 ‘바스켓 케이스’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도 ‘바스켓 케이스’로 불렸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반기문 UN 사무총장과 '사헬'지역을 방문했어요. '부르키나파소', '말리'같이 사람들이 "세상에! 여기가 과연 발전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국가들에서 저는 놀라운 가능성과 개발 의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 이들의 모습이 바로 50~60년대에 우리 한국인의 모습이었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그 당시의 한국인들과 마찬가지로 발전하고 싶은 욕구도 있고 또 자신들도 발전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가장 근본적인 변화들입니다.

저는 현재 기후 변화에 대한 걱정도 있습니다. 방금 녹색기후기금 출범식에 다녀왔는데요. 여기 있는 학생들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는 여러분의 자녀와 후손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문제예요. 여러분이 30-40대가 되면 방콕이 물에 잠길지도 모릅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날 거고 여러분은 이를 직면하게 될 겁니다. 우리 세계은행그룹은 가용 가능한 자원을 이용해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것 중 하나는 청년 실업입니다. 전 세계 70억 인구 중 25 세 이하 인구는 30억 명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매우 많은 수가 개도국에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청년층은 장년층보다 실업 가능성이 2~4배 높아요. 스페인 청년 실업률은 50% 이상입니다.

그리고 여기 한국도 청년 실업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의 가장 주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이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문제와 비슷합니다. 새로운 사업을 창출해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젊은 사람들이 벌써 시장에서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면 그러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렇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창조 경제'에 집중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가는 창의성과 역동성을 그들 경제에 어떻게 불어넣을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김준영 / 성균관대학교 총장

광범위하고 사려 깊은 견해 감사드립니다. 언급하신 청년 실업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국제화 시대에 높은 실업률이 존재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는 전 세계의 협력 없이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청년 실업은 매우 복잡한 요인들로 인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노동 시장이 청년층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청년들의 해외 취업 기회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국제화 시대 재능 있는 청년들이 국경을 넘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전 세계가 장벽을 허물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그런 면에서 볼 때, 대학과 세계은행은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겁니다. 이런 개발 관련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교육이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될 것입니다.

국가가 교육을 통해 어떻게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경쟁력을 높여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세계는 한국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김용 / 세계은행 총재

대답을 하실래요? 이교수님?

이숙종 / 국정관리대학원

예. 제가 시작할게요.

김용 / 세계은행 총재

양성평등

이숙종 / 국정관리대학원

양성평등. 감사합니다. 한국 교육 체계는 매우 표준화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학업적으로 높은 성적을 내고 싶은 욕구가 큰 나라로 유명하죠. 이는 확실히 한국의 성장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매우 가난한 나라에 천연자원도 많지 않았어요. 인적 자원 훈련이 우리의 유일한 강점이었죠. 교육은 한국의 경제 성장에 크게 이바지를 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은 성숙 경제 국가로서 지식 집약적인 사회인 세계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혁신적으로 돼야 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정부도 이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학 입학시험 중심의 중등교육은 변화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말이죠. 그리고 이런 대학 입학 경쟁은 이미 초등학교부터 시작됩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논리적인 사고와 추론 능력은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니까요. 어린아이들은 벌써 대학입학 시험의 경쟁에 빨려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중등 교육을 바꾸지 않는 한, 더욱 유연하게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의 지적 그리고 경제 경쟁력에 대한 전망이 그다지 밝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고등 교육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나름의 성과를 냈습니다. 성균관대학교와 같은 많은 한국 대학들이 학문적인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됐고, 외국 유학생들과 교수를 학교 안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공부하거나 가르치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내적 세계화를 통해 한국의 대학들이 국제평가기관에 의해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큰 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의 고등교육에는 2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큰 낭비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너무 많은 수의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대학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생의 80% 정도가 2년제나 4년제 대학에 진학하게 됩니다.

그리고 졸업하게 될 때가 되면 학생들은 시간이나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되는 직업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교육 기관과 노동 시장 간의 연결 고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

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낭비는 '여성 대졸자들'입니다. 고등 교육을 놓고 봤을 때 한국 여성들은 남성과 동등해졌습니다. 하지만 고등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노동 시장으로 진입할 때 불평등이 존재합니다. 고등 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더욱 활동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우리 국가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두 가지입니다.

VCR3-한국 교육의 문제

김용 / 세계은행 총재

저와 크리스틴 라가르드, 그리고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그리고 세계무역기구,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들은 프랑스에서 프랑수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만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죠. 왜냐면 당시 '피사' 점수가 나왔고 앙헬이 이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야기를 나누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핀란드 학생들은 아침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학교에서 수업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는 자유예요. 그리고 1주일에 숙제를 6시간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핀란드의 피사 성적도 매우 좋아요. 상승세죠. 한국 학생들은 아침 8시부터 밤 11시까지 학교에서 공부합니다. 11시에 수업이 끝나는 이유는 경찰이 와서 강제적으로 그만두게 하니까요."

크리스틴 라가르드는 저를 보고 '아침 11시예요? 아니면 밤 11시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왜냐면 크리스틴은 그런 상황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이에 대해서 핀란드 사람들은 매우 강한 어조로, '시험이 훌륭한 결과를 내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국가가 잘못하고 있어요. 세계은행은 어떤 형태의 시험들은 유용하다고는 봅니다. 모든 국가가 핀란드처럼 시험을 거의 없애고 성공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죠. 실제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봐야만 합니다.

대부분 시간을 학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사용한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매우 중요한 부분에 학생들은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2000년도 피사 시험을 도입한 것은 매우 괄목할 만한 성과입니다. 시험을 본 적이 없다면 한 번 보세요. 매우 흥미로워요. 이는 여러분이 얼마나 정보를 잘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지 측정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개발한 이유는 '사람들이 현실에서 효과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능력을 꽤 잘 측정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핀란드는 훨씬 더 적은 시간을 투자해 같은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던지는 질문은 '같은 결과를 맺기 위해서 8시부터 11시까지 공부를 해야 하는가?'입니다. 그리고 4시간 수면으로 학생들을 힘들게 하지 않았다면 학생들은 더 좋은 성적으로 낼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이슈에 대하여 이야기했던 모든 사람은, '네, 이게 최선이 아닌 것은 압니다. 이런 방식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을 바꿀 수가 없네요.’ 라고 말합니다.
저는 ‘왜 안돼요?’ 라고 말할 겁니다.

한국 부모님들에게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사당오락’은 말 그대로 우리가 우리 자녀를 천천히 죽이는 시스템이에요. 그런 시스템 속으로 아이들을 던져놓을 수 없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학생들과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런 시스템을 좋아하는 학생을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압박을 받으면서 시험을 위해 공부하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는 학생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같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다른 시스템이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이에 대한 쉬운 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한국인에게 던지겠습니다.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아이들을 4시간만 재우며 압력을 주는 부모님들은-그리고 큰 비용을 지출하는 부모님. 우리가 알아낸 바로는 한국 부모의 아이들 교육비를 측정하여 보니, OECD 평균보다 15%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1개의 선진국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말이죠.

그래서, 시험에 중심이 맞추어져서 학생에 투자되는 돈이 매우 많습니다. 여기서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약간 뒤로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독일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갈 수 있나? 핀란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제 핀란드 친구는 ‘한국이 핀란드 교육 체계를 자세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의 성장을 위한 기초를 설립하기를 원한다.’는 명목하에 대화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직장을 제공하여주고 젊은이들의 멋진 미래를 보장하여 주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요. 그리고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논의하는 겁니다.

핀란드 사람들은 이런 대화를 30년 전에 했어요. 그리고 매우 인기가 없던 그들의 교육 시스템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어요. 그들은 현재 그때 힘겨운 토론을 통해 어렵게 내린 결정으로부터 나온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VCR4-대학 경쟁력

김용 / 세계은행 총재

저는 성인이 되고 나서 대부분을 교육자로서 보냈습니다. 하지만 국가수반, 재무 장관, 그리고 교육장관들은, 특히 제가 만나는 국가수반과 재무장관들은 저에게 항상 ‘더욱 큰 혁신을 기반으로 한 경쟁력 있는 경제를 건설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제가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저

에게 묻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했나요?' 모든 사람이 하는 질문입니다. 제가 다트머스 대학 총장이었을 때 저는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다트머스는 미국에서 최고의 교육 기관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 자신에게 항상 물었어요, '그것이 사실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지?'

저희가 1위인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미국의 뉴스나 세계 보고서 랭킹을 보세요. 매년 1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있나요?

작년에는 몇 위였죠? 1위가 누구이고, 누가 어디에 있는지 알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전 순위가 앞으로의 순위를 결정하는데 많이 작용합니다. 저는 이것을 매년 해왔기 때문에 미국 대학의 모든 총장은 이런 순위 관련 일을 합니다.

몇천 개의 대학교를 보면서... 1위와 40위의 차이를 아는 방법이 없습니다. 1위 3위 차이를 알 수 없죠. 알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을 더 했습니다. 다트머스에서는 그냥 총명한 학생들만 입학시키는 것인가? 그리고 이마에 무슨 스탬프를 찍고 나가는 전후로 학생 모두 성공을 하게 되는 건가요? 우리는 정말 가치를 부여하여주고 있는 건가요?

저는 모든 대학이 이런 질문을 시작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트머스는 거의 300년 된 대학입니다. 세계 곳곳의 사람들이 아이비리그 대학 총장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하곤 하였습니다.

'저희도 아이비리그 대학을 만들고 싶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예일대 총장을 20년 동안 역임한 제 친구 '리차드 레빈'은 이렇게 말했죠.

'한 300년 정도 걸려요.'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이비리그는 모든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지속이 불가능한 모델입니다. 그렇지만 스스로 지속이 되고 있죠. 다트머스 대학에서 한 학생을 교육하는 비용이 120,000 달러입니다. 55,000 달러가 학비인데 장학금 혜택을 학생들에게 제공해서 학생들은 1년에 평균 18,000 달러를 냅니다. 사립 아이비리그기는 하지만 뉴햄프셔에서 가장 저렴한 학교입니다.

120,000 달러의 비용이 들지만, 수업료를 20,000달러만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졸업생들이 학교를 너무나 생각해서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그들이 학교의 인지도가 높게 유지될 수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대략 1억 5천만 달러를 매년 보내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 수십만 달러가 계속 들어옵니다.

그래서 경제 관점에서 볼 때 아이비리그 학교는 재정적으로 지속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졸업생의 기부금이 이를 가능케 하지요.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베낄 수가 없습니다. 어

떤 국가에 가서, 졸업생들이 많은 기부금을 대학에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바꿀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바꿀 수 없다면, 다른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삼성과의 실험은 매우 흥미로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합시다. 고등학교 졸업자의 80%가 대학을 간다고 들었는데요. 독일에서는 거의 40%입니다. 스위스는 25%입니다. 여기 부총재는 스위스 분인데요. 스위스에서 남는 75%는 정부가 부분적으로 지원해주는 견습 프로그램에 갈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정부가 받을 내고, 회사가 받을 내게 됩니다.

독일은 직업적인 기술 훈련을 매우 중요시하기 때문에 직업 훈련학교도 대학만큼이나 명문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 두 국가는 노동 시장의 특성에 가장 적절하게 맞추어진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한국은 어떻게 시스템을 움직이죠?

고등 교육 차원에서 제가 보기에 가장 흥미로웠던 시도는, 마이클 크로우 애리조나 주립대 총장이 이끈 실험입니다. 여긴 공립학교라 주의 인구 비율에 따라서 입학생을 받습니다. 북미 원주민도 많이 있고, 멕시코계 미국인, 라틴아메리카 사람들도 많은 지역입니다.

이 대학의 학생들은 영어를 잘하지 못하면서도 입학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학교는 입학 전과 후에 시험을 보는데 학생의 전체 성적이 매우 큰 차이, 다시 말해 큰 향상을 보입니다.

마이클 총장은 찾을 수 있는 모든 교육학적 기술을 적용하는 사람인데. 아이비리그를 비판해하고 있어요. 물론 저는 아이비리그에서 성장하였고, 이 대학들을 개인적으로 믿는 편이지만요.

그는 아이비리그 대학들은 '신분 제조 공장'이라고 부릅니다.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만한 똑똑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신분을 부여하여 주고 세상으로 보낸다고 말합니다. "물론 어차피 성공했을 학생들이에요."라고 말하죠.

저는 마이클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전부라는 데 동의하지 않아요. 하지만 모든 국가는 이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VCR5-글로벌 인재가 갖춰야 할 조건

김용 / 세계은행 총재

한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그것이 무엇이나면, '악셀 반 트룟첸버그' 부총재는 네덜란드 출신입니다. 네덜란드의 거의 대부분 사람은 3개 언어를 구사합니다. 똑같은 3개 언어를 구사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한국이 아시아의 네덜란드가 되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한국인들이 영어를 잘하기 위해 많이 노력한다는 걸 잘 압니다. 하지만 전 모든 사람이 3개 언어를 배운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언어가 되었든지 상관 없습니다. 저는 3개 국어를 구사합니다. 한국어와 스페인어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3개 국어 이상 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나서...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 1개 언어밖에 몰랐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한국어를 완전히 잊어먹어서 연세대학에 와서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했습니다. 지금은 아주 좋습니다. 반기문 사무총장과 돌아다닐 때 우리가 한국어로 이야기하면, 아무도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니까요.

관점을 좀 더 넓혀봅시다. 토니 웨그너는 매우 훌륭한 교육자 중 한 명입니다. 지금은 하버드 교수입니다. 그는 가르치기도 하고, 교장 생활도 오래 했습니다.

그는 '혁신가를 만드는 법'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아이가 학교를 거쳐 대학으로 가는 도중에 '좋은 혁신'으로 결실을 맺어주는 3가지 필수 요소들을 이야기합니다. 3가지 주요 특성은 '놀이(play)', '열정(passion)', 그리고 '목적(purpose)'을 말합니다.

그가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놀이'예요.

여기서 노는 것은 '여러 가지 분야를 탐험하는 것'입니다. 어떤 틀에 갇추어진 노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실험하면서, 실패도 해보고, 어떤 것을 만들기도 해보고.. 하는 것이죠. 밤 11시까지 공부를 하고 있으면 놀 시간을 얻기가 힘듭니다.

그는 '노는 것'이 창의성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열정'이에요. 이는 정말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무엇에 열정을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열정은 '오랫동안 일관성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보기 위해 '시간을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는 '놀이'와 '열정' 두 가지 요소가 혁신이나 창조로 귀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요. 자기가 헌신을 다하는 것이 목적이 있다고 느끼지 않는 이상 말이죠. 자기 자신보다 더 큰 목적이 있는 것을 뜻합니다. 제 경우는 가난과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제 연구와 학업에 대해서 더욱 진지한 태도를 가지도록 하여주었죠. 아이티와 같은 지역의 가난을 보면서 말입니다. 웨그너는 모든 사람이 즐기면서 여러 가지를 시도하여 보고 실패도 해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하면서 목적을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4번째 요소를 더하겠습니다.

이는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것 하나로... '끈기'입니다.

많은 연구에 시험으로 측정되는 지적 능력인 IQ는 평생 동안 많이 변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큰 폭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은 '끈기의 능력', '훈련하는 능력', '당장의 성과가 없어도 계속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어떤 사람은. 전문가가 되기 위해선 10,000시간이 걸린다고 말합니다.

저는 '놀이', '열정', '목적', 그리고 '끈기'가 거의 보편적으로 사람을 성공시키고, 매우 효과적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요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한국에서도 멋진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여러분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제 생각에... 인구통계를 감안했을 때, 한국 학생들은 가장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자세를 가지고, 세계로 취업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스스로 언어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영어로 질문한 3명의 학생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핵심 요소입니다. 먼저 시작하고 계속해서 연습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잘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제가 했던 말들을 요약하자면, 첫 번째로 저는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매우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동 시장에 들어갈 때 피사 점수와 나갈 때 피사 점수의 차이가, 한국에서 가장 커요. 다시 말해 기존 노동시장에 있는 사람의 점수보다 취업시장에 진출하는 학생들의 점수가 훨씬 높다는 뜻이죠.

그리고 기존 노동시장에 있는 사람의 수준도 꽤 높아요.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측면에서 한국은 세계 4위입니다. 5위인 독일보다 앞서 갑니다. 한국은 5위인 독일보다 특허가 3배가 많아요. 매우 많은 시간 동안 끈기를 가지고 일하는 능력에 있어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지도층이, 차세대 성장과 발전에 관하여 깊은 관심과 고민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육 시스템에 관해 매우 심도 있는 토론으로 이어져야 할 겁니다.

김준영 총장 / 성균관 대학교 총장

김용 총재와 유익하고 흥미로운 토론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비전과 통찰력을 보여주신 김용 총재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용 총재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끝>